

○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

-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에 경제미상이 걸렸음
 - 지난 2월 21일 기준 현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0.36달러로 상승하면서, 2008년 9월 8일(101.83달러) 이후 30개월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음
 - 대표적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도 뉴욕 전자거래에서 온스당 1,400달러를 넘어서며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가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전반에도 큰 파장을 불러 오고 있음
 - 미국의 월가에서는 현 수준에서 유가가 20~30달러 오른다면 세계경제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유가상승은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무역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어서 고유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경상수지 악화는 실질총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물가 및 금리 상승까지 겹쳐 소비, 투자 위축은 더욱 심화되어 국내 경제 성장에 커다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

2. 국제유가의 결정과 유가상승 원인

1) 세계의 유전

- 중동 유전
 - 전 세계 매장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이란 고원 남서쪽의 자그로스 산맥 앞쪽에 있는 구릉지대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서해안을 따라 존재하고 있음
- 아프리카 유전
 -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 의해 탐사가 이뤄져 1956년 알제리에서 하시메사우드 대유전이 발견되고 1959년 리비아의 세르텐 유전이 발견되면서 두 나라가 산유국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
 -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유전이 속속 발견되고 있고 탐사도 진행 중에 있음
- 북아메리카 유전
 - 주요 산유지대는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로 미국의 루이지애나 텍사스와 걸프만 유전의 생산량이 가장 많음
 - 미국 석유생산량은 1925년 세계 생산량의 75%까지 차지한 바 있지만 1978년 13.9%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알래스카에서 탐사가 진행 중임
 - 이외에도 캐나다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서부 4주에서 산출되고 있는데 중동이 보유한 만큼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타
 - 중남미의 경우 1863년 페루, 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 차례로 개발되었음
 - 특히 멕시코는 중동만큼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도 세계

제1의 산유국으로 불리고 있음

- 제정(帝政) 러시아 시대에 카스피해 연안 유전이 개발된 후 여러 지역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있으며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과 같이 극동 또는 동남아시아에도 유전이 분포돼 있음

2) 국제유가의 결정

- 세계 유전이 이처럼 넓게 분포돼 있듯이 이들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종류나 품질도 다양함
 - 유가의 결정은 대체로 거래 유동성이 높고 가격결정과정의 투명한 3가지 원유를 기준으로 삼고있음
- 3가지 원유는 WTI(서부 텍사스 중질유)와 브렌트(Brent)유, 두바이유가 있음
 - WTI(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생산되고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며 모든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유종임
 - 브렌트(Brent)유는 영국 북해지역에서 생산되며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의 기준 유종임
 - 두바이유와 오만유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연방국에서 생산되며 아시아 지역 원유 가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고 있음
- 이 세 원유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원유 품질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두바이유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표 1> 우리나라 원유 수입현황

단위 : 1,000배럴

연도	총량	지역별				중동 의존도	수입단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2005	843,203	689,356	111,937	34,424	7,487	81.8	48.9
2006	888,794	730,843	110,306	42,814	4,831	82.2	61.1
2007	872,541	704,020	131,273	35,557	1,690	80.7	67.9
2008	864,872	746,458	108,482	9,932	-	86.3	95.8
2009	835,082	705,363	116,379	11,608	1,734	84.5	59.3

자료 : 2010 에너지통계연보, 지식경제부

- OPEC(석유수출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같은 국제 유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구도 있음
 - 중동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4개국(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앙골라), 남아메리카 2개국(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총 12개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제 유가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OPEC이 직접 유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유가밴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유가 변동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유가가 움직이도록 산유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을 늘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생산을 줄이는 방식임
 - 고유가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산유국의 이익이 되지만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OPEC의 최초 결성목적은 유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이렇듯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한 가격정책과 석유산업 진출, 자원 보호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음

3) 유가상승의 원인

- 일반적으로 첫째 원인으로 공급량의 부족을 꼽고 있음
 -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며 2008년을 기준을 봤을 때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인 반면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은 8,700만 배럴로 하루 약 200만 배럴이 늘 부족한 실정이었음
-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가 좋아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기름 값은 경기호황일 때 오르고 경기불황일 때 내리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자연적인 수요증가와 달리 한 나라에서 전략비축유(Strategy Petroleum Reserve) 확보에 나설 경우도 유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올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중국의 전략비축유 확보설임
 - 전략비축유는 각국이 전쟁이나 수급차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 미국이 지난 19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석유비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도 이를 조성하고 있음
 - 미국은 약 7억2,650만 배럴을, 일본은 5억8,300만 배럴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6억8,500만 배럴을 확보해 일본을 능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임
 - 문제는 각 나라들이 전략비축유 확보에 나서는 반면 석유수출국들은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있어 수요만 급증하게 되니 유가가 오르게 되는 것임
- 달러화 약세 또한 유가상승의 원인임
 - 국가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 달러가 약세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산유국은 기름 값을 올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임

- 이밖에도 미래 기름 값에 대한 불안 심리와 투기 자본이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산유국들의 사회치안 불안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치안불안으로 석유생산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석유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유전 광구 개발을 기피하다보면 석유 증산은 힘들어지고 기름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3. 리비아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리비아 석유생산 현황

- 리비아 사태가 세계경제와 원자재가격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리비아가 튀니지와 이집트와 같은 독재국가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튀니지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GDP규모로 볼 때 국민국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반면 리비아의 경우 GDP규모가 1만 2천 불을 넘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남다르다는 것임
 - 또한,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 보유국으로 전세계 원유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8위의 석유보유국, 하루 생산기준 세계 18위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임
 - 따라서 리비아 사태가 악화될 시에는 중동과 유럽을 연결해주는 이집트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사태가 세계경제와 유가에 민감한 반응을 주는 것임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리비아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석유 생산량이 165만 배럴인 북아프리카 최대의 석유생산국이며 석유 이외에도 하루에 수십만 배럴의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액화 석유류를 생산하

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저널에 따르면 리비아의 개발되지 않은 석유 매장량이 무려 440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나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류는 8750만 배럴에다 리비아가 전세계 석유류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유가 변동성은 과도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리비아 사태 진행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평균 3%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3대 유종이 배럴당 100달러시대를 재현하고 있고 금 등 안전자산의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2)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름을 100%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세계유가의 등락에 국내 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처럼 기름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기름 값이 오르면 무역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우선 기름 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게 됨

<표 2> 에너지 원별 구성비

연도	1차 에너지 원별 구성비 (%)						수입 의존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2005	24.0	44.4	13.3	0.6	16.1	1.7	96.6(80.6)
2006	24.3	43.6	13.7	0.6	15.9	1.9	96.5(80.6)
2007	25.2	44.6	14.7	0.5	13.0	2.0	96.5(83.6)
2008	27.4	41.6	14.8	0.5	13.5	2.2	96.4(83.0)
2009	28.2	42.1	13.9	0.5	13.1	2.2	96.4(83.4)

자료 : 2010 에너지통계연보, 지식경제부

주 : ()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생산에 포함시 수입의존도

- 특히 OPEC이나 아랍석유수출기구인 OAPEC과 같은 산유국들이 기름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기름 생산을 제한한다면 세계 각국은 엄청난 경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이미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명 석유파동, 오일파동으로 인해 세계는 경제적 대혼란을 겪은 바 있음

- 실제로 1979년 기름이 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적자폭이 1978년 444억 달러에서 1979년 505억 달러로 확대된 반면 산유국들은 1978년 240억 달러의 흑자에서 1979년 770억 달러로 흑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엔 1973년 1차 오일파동 당시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중화학공업 확대 정책으로 1979년 오일파동 때는 큰 영향을 받아 1979년 6.4%이던 경제성장률이 1980년 -5.7%로 급격히 하락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음

- 지난 2007년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행된 보고서¹⁾에 의하면 유가가 10% 상승시 국내 GDP는 0.12% 하락하며 경상수지는 약 19억 달러 감소, 물가는 0.2% 상승,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0.12%, 0.8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경상수지 적자도 대폭 늘어나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1.29%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유가의 적정선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2008년 때 유가급등으로 치명타를 입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음

- 2008년 당시WTI 평균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였고 세계 GDP 대비 원유지출비중이 5.1%였으며 그렇다면 GDP대비 원유지출 비중이 세계적으로 5.1%가 되면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

1) 하나 산업정보, 2007.12.14, 제66호

- 의 임계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IMF가 추정한 2011년 세계 GDP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1.5%의 원유 수요 증가를 가정할 경우 WTI가 105달러에 이르면 세계 GDP대비 원유지출비중이 2008년 임계치인 5.1%에 이르게 됨
- 현재 WTI가 3월 2일 기준으로 102.21달러를 보이고 있고 두바이유도 109.44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0%이상 중동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두바이유가 1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시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산업별 유가상승의 영향과 전망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반인 수출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가 인상이 전반적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도 불가피하지만 조선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부정적 영향 산업계

- 해운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 업종이라 할 수 있음
 - 대형 컨테이너선사가 매년 운송 원료로 300만톤 이상의 벙커C유를 사용하는 등 매출의 20% 정도를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벙커C유는 '11년 들어서만 20%나 급등하고 있음
 - 해운업계는 배의 운항 속도를 낮춰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류비 절감에 나설 계획임

- 항공업계 역시 유류비가 총 비용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연평균 각각 347억원과 10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등 유가가 1달러만 상승해도 연평균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유가가 저렴할 때 항공유를 미리 사두는 '항공유 헤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유 헤징' 비율 현행 25%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함께 탑승률과 운항 시간대 등에 따른 음용수의 탑재량 분석, 엔진 효율 증대를 위한 엔진 내부 물 세척과 경량 화물탑재용기 도입 등 다양한 원가 절감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등 제품 원가가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 등 화학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압박으로 당분간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임

- 유가 상승이 당장은 매출 및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름값 비용 부담이 큰 대형차 위주로 판매시 자동차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고연비 차량 기술 개발과 연비 경쟁력 있는 소형차 판매를 늘리고 친환경차를 출시하는 등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전자업계의 경우 앞에 살펴본 다른 산업과 비교시 유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유가상승이 전반적인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간접적으로 해상운임과 항공료 등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등 다소 부담

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철강업계도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지만 유가 상승이 생산원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철강업계도 각종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2) 긍정적 영향 산업계

-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거 경제성이 낮았던 자원 개발에 불이 일면서 심해 원유추진인 드릴십 등 해양 부문 발주가 급증하는 등 조선업계는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0년 한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발주된 드릴십은 6척인 가운데, '11년들과와 이미 5척이 발주되었음
 - 한편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9.5% 감소했지만 '10년 다시 10% 이상 증가하는 등 다소 감소한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도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AP몰러-머스크와 컨테이너 1만 8,000개를 한번에 나눌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30척을 6조원에 수주하였음
- 최근 리비아 민주화 유혈사태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 확산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이 리비아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10년 기준 19억 6000만달러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720억달러)의 2.7% 수준으로 미비함
 - 해외수주 중 60% 가량이 집중된 UAE(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3국으로만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업체들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임
 - 오히려, 도리어 유가 인상이 중동 국가의 설비투자로 이어지면서 정유

플랜트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 정유업계의 경우 두바이유 가격이 오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하여 정제이윤이 커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유가 상승 자체는 호재일 수 있음
 - 단, 기름값 인상시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가중되는 바 정부가 기름값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기름값 인상이 쉽지 않아 당분간 국제유가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
 - 정유사는 그간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에 따라 가격 인하 방침을 세웠지만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국제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을 기다렸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가격 인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가가 계속 상승시 향후 수요 위축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참고문헌】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 산업정보. 제66호. 2007. 12. 16
- 국가지식포털 블로그 <http://blog.naver.com/00knowledge?Redirect=Log&logNo=5010857646>
- 2010에너지 통계연보. 지식경제부
- 유가 100달러 돌파, 산업계 초비상(매일경제, '11.2.22),
- 油價 '위기' 오나... 산업계 초비상 (대전일보, '10.2.22),
- 중동 시위 확산..국내 항공사 영향 제한적(토마토뉴스, '11.2.22),
- 항공·해운·자동차업계 '오일쇼크 올라' 발동동(세계일보, '11.2.22),
- 조선업계, 수주는 밀물· 이익은 썰물? (머니투데이, '10.2.23),
- '가격압박+ 중동변수', 정유사 '이중고'(연합뉴스, '11.1.31) 등 국내 언론보도 참고

[참고자료]

[미래에셋증권] 리비아 사태, 세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자료

리비아 사태, 세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먼저 리비아 사태가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튀지니, 이집트 사태보다 충격 커
- 글로벌 주가 평균 3% 이상 하락
- 3대 유종 배럴당 100달러시대 재현
- 금 등 안전자산 선호경향 뚜렷
- '재스민 혁명'의 확산가능성 주목

▶ 이전의 튀니지나 이집트 사태와 달리 리비아 사태에 따른 충격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작용
- 8대 원유생산국, 세계생산의 2%
- 장기집권 상징, 도미노 현상 우려
- 리비아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 이번 사태로 유가가 크게 올라서 그런지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그플레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경기둔화, 총수요과 총공급측 요인
- 총수요 감소, 경기둔화와 물가하락
- 총공급 증가,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 총공급 요인은 주로 비용요인 상승
- 스테그플레이션, 경기침체하 인플레이

▶ 실제로 세계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국제유가 상승 세계경제 충격 커
- 유가 10달러 상승, 성장률 0.2%p 하락
- 반면 세계소비자물가는 0.3%p 상승
- 올해 성장률 4.2%, 물가 3%대 전망
- 아직까지 가능성보다 우려차원 제기

▶ 이번 사태를 거론할 때 2008년 당시와 자주 비교하는데요. '2008년 유가 악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2008년초 유가 70달러->7월 148달러
- 인플레이로 저금리-대출간 선순환 차단
- 미국 금융사, 마진 콜->디레버리지
-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충격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적어

▶ 인플레이와 관련돼 스테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애그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골드플레이션, 비지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 비용요인에 의한 인플레이 용어 남발
- 애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발 인플레이
- 피시플레이션, 수산물 가격발 인플레이
- 골드플레이션, 금값발 인플레이
- 비지플레이션, 식료품 가격발 인플레이

▶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워
- 침체경기 부양하며 인플레이 가중
- 인플레이 진정시키면 추가 경기침체
- 턴버겐 정리, 정책목표와 수단간 일치
- 경기부양과 물가안정간 정책조합

▶ 우리 입장에서도 인플레이가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까?

- 한국 인플레이, 확산형보다 수렴형
- 금리인상 대응 시 국민부담 가중
- 비용상승 요인은 평가절상 대응
- 가변성 큰 만큼 성급한 대응 자제
- 국민, 인포데믹과 리스크 데믹 경계